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국민연금 개편, 부담과 신뢰를 어떻게 맞출까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국민연금 개편, 부담과 신뢰를 어떻게 맞출까

루리

2025년 개편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지키는 조합이었다. 다음 과제는 인상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 기금 전망이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공개해 신뢰를 쌓는 일이다.

2025년 개편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지키는 조합이었다. 다음 과제는 인상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 기금 전망이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공개해 신뢰를 쌓는 일이다.

2026-10-29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정책브리핑 자료를 인용했다. 추계 수치는 가정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하지 못한 값은 「공식 확인」으로 남겼다.

1 주장

국민연금 개편의 성패는 보험료율 숫자보다 부담과 신뢰를 함께 설명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퍼센트로 고정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가입자는 그만큼 미래 연금이 지급된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고, 연금을 받는 세대는 개편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는지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추가 인상이나 삭감을 말하기보다, 개편 효과와 한계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고 정기 재정계산에서 점검하는 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근거

첫째, 개편의 내용은 비교적 분명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퍼센트에 이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퍼센트로 올려 고정한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퍼센트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도 법에 명시됐고,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며 최대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군복무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039&mid=a10503000000,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039&mid=a10503000000),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104M0.do>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104M0.do>)).

둘째, 전망의 전제가 다르다. 2023년 1월 발표된 제5차 재정추계는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0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03>)). 국민연금공단은 개혁 후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을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높이면 2071년까지 15년 연장된다고 소개한다. 같은 자료는 수익률 1퍼센트포인트 상승이 보험료율 2퍼센트포인트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2071년이라는 숫자에는 수익률 상향이라는 별도의 조건이 붙어 있다.

셋째, 개인 부담은 수치로 제시되고 있다. 공단은 2025년 기준 평균소득자(A값 309만 원)가 40년 가입하고 25년 수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총보험료가 약 5,400만 원, 총연금액이 약 2,200만 원 늘어난다고 추정한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다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104M0.do>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104M0.do>)).

3 반론과 재반박

비판은 두 방향에서 나온다. 한쪽은 보험료 인상 폭에 비해 기금 소진 시점이 충분히 늦춰지지 않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다른 쪽은 소득대체율 43퍼센트로 고정해 노후소득 보장이 겨우 유지되는데 더 낮출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두 비판 모두 근거가 있다. 부담 증가는 개편 자료가 스스로 추정하고 있고, 소득대체율 고정은 법에 명시돼 있다.

재반박은 다음과 같다. 두 주장을 모두 검증하려면 어느 쪽 숫자가 맞는지 아니라 어떤 가정이 달라질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한다. 출산율이나 수익률이 가정과 다르게 움직이면 소진 시점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정기 재정계산에서 가정과 실적을 비교해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장치를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동조정장치 같은 추가 구조 개편이 어떤 내용으로 논의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건복지부 자료로 공식 확인해야 한다.

4 결론

국민연금은 얼마를 더 내는지와 같은 비중으로, 낸 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2025년 개편은 보험료율 13퍼센트, 소득대체율 43퍼센트,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라는 틀을 세웠다. 그러나 2071년이라는 전망이 수익률 상향을 전제한다는 점을 함께 알리지 않으면 신뢰는 쌓이지 않는다.

앞으로의 개편 논의는 가정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한 공식 자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이 세대 간 부담을 합의 가능한 범위로 좁히는 길이다.

5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039&mid=a10503000000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039&mid=a10503000000)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104M0.do>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104M0.do>)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2023.1.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0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03>)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6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